

發掘最終日에는 圖面에서 보는 影標의 長石이 地表下 一m에서 創寺當初것으로 認定되는 石材가 西塔方向으로 位置한 것이 三個所에서 出土發見되었는데 그 延長을 確認 못하고 中止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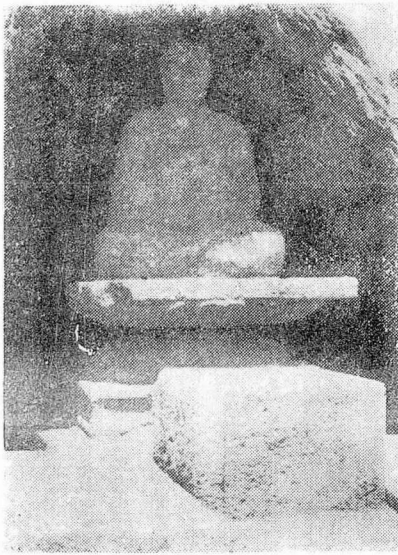
以上 發掘概況을 記述한 것이다. 좀더 時間의 餘裕와 時期를 빨리 잡고 發掘하였다면 하는 發掘後의 要望이었다.

(追記) 今次發掘作業을 利用해서 西劍 幢竿支柱座石이 數片으로 破壞埋土된 것을 舊位置에 맞추어 놓았으며 東側幢竿座石도 亦是埋土된 것을 除土하였음을 附記하여 둔다.

### 古阜 龍興里의 佛跡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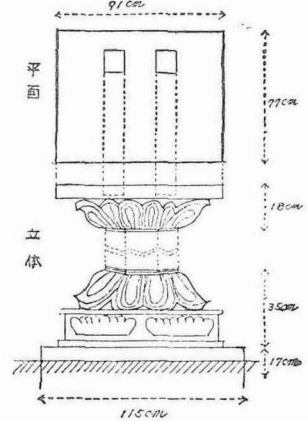
李 殷 昌

全羅北道 井邑郡 古阜面 龍興里 佛跡을 調査한 바 있다. 古阜縣 古邑에서 西北쪽으로 고개(峙)를 넘으면 龍興里 海鼎部落의 山中腹에 海鼎寺①라 傳稱하는 寺址가 있는데 寺址에는 雅淡한 三層石塔② 一基와 石造佛立像③ 一軀가 있고 또 重圈柱座가 造出된 礎石 一個가 殘存하고 있다. 그리고 下麓 龍興里 塔洞에서 石造蓮花座臺에 安置된 石造佛座像 一軀와 石塔殘片 等 石造物④을 調査할 수 있었다.



(1) 石佛座像 및 石造蓮花座臺

石佛座像은 磨滅이 極甚하여 彫刻이 分明치 않고 石造蓮花座臺는 아직도 彫



石造蓮花座臺

刻이 明確하여 優麗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石佛座像은 地上에 露出放置되어 風磨雨洗하였고 石造座臺는 地下에 埋沒되어 保存이 良好한 까닭이다. 石佛座像은 前述한 바와 같이 風化를 입어 頭髮、顔部、衣紋等 모두 彫刻이

分明치 않아 未詳하지만 등근 얼굴의 豐滿相과 端雅한 正座等 本像의 輪廓과 姿勢로 보아 既往에는 優秀한 佛像이었음이 짐작 된다. 結跏趺坐에 智拳印을 보이고 있으니 곧 毘盧舍那佛座像으로 推定된다. 石造蓮花座臺는 下臺石、中臺石、上臺石으로 區分되는데 中臺石은 없 어지고 下臺石과 上臺石만이 殘存하고 있다.

下臺石은 넓직한 四角地臺石위에 놓였는데 二段으로 區分되었으니 곧 下段은 四角盤石의 四面을 各各二區로 分하여 各區에 流麗한 眼象을 彫刻하였고 上段은 流暢한 總八葉의 伏蓮紋이 둘러 세겨졌는데 四隅角쪽의 蓮瓣은 길고 四面中間의 蓮瓣은 등글고 짧아서 伏蓮은 大略 四角形으로 자리잡고 蓮花紋 上頂은 中臺石을 받기爲한 八角形二段級의 造出이 있다. 中臺石은 缺失로 알 수 없으나 下臺伏蓮石에 中臺石을 받기爲한 八角形層級 造出이 있고 上臺仰蓮石에도 中臺石에 놓일 수 있도록亦是 八角形層級 造出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中臺石은 八角竿石의 形態로 推定된다. 上臺石은 八角形層級 造出部를 起點으로 仰蓮紋이 彫刻되었 는바 그 樣式은 下臺石 伏蓮紋과 같으며 그 配置는 相對的이다. 仰蓮이 받고 있는 臺石은 四角板石으로 上面을 緊게 다듬어서 佛像을 安置하게 하였고 光背를 세웠던 二個의 方孔(縱一三cm, 橫一一cm, 深七cm)이 後面에 치우쳐 穿設되었다. 이 石造蓮花座臺에 있어서는 下臺石이 四角形으로 되었는데 中臺石에 이르러서는 八角形으로 變化되고 다시 上臺石에 이르러서는 四角形을 形成하였음을 注目되는 바이며 그 手法은 麗代의

所作으로推定된다.

實測值

- 一、石佛坐像 總高……九六cm 膝幅……七〇cm 肩幅……四七cm
- 二、石造蓮花座臺

① 下臺石 ②地臺石……橫一一五cm 縱……九七cm  
 ③伏蓮石……橫八八cm 縱……七四cm 高……一七cm  
 層級一邊一八cm 高……三五cm (八角形)

② 上臺石 ④橫……九一cm 縱七七cm 高……一八cm (八角形層級一邊一八cm)

(2) 石塔殘石

石塔殘石이 前記 石佛座像앞에 現存하고 있는데 其一은 石塔屋身의 面石인 바 二個가 있으니 幅九七cm 高五五cm 厚二二cm의 板石 二枚로서 幅一二cm의 隅柱表示가 있다. 其二는 屋身 一個인 바 幅五四cm 高三五cm로 四隅柱가 刻出되고 中央에는 直徑一三cm、深三cm의 外孔과 直徑七cm 深五cm의 內孔으로 된 곧 一段圓形의 舍利孔이 있어 注目된다. 이들 石塔殘石은 鮮明한 彫法을 보이는 것으로 前記 石佛과 座臺와 같이 麗代의 것으로 推定된다.

註① 海鼎寺는 洞民에게 確認한 바 既往에 「海鼎寺」라는 在銘瓦片의 出土로 推定된 寺名이요 部落名이 「海鼎」이니 이는 곧 寺名에 依한 것임을 알았다.

② 龍興里三層石塔

單基壇에 三層塔身이 重積된 바 各各 一個石으로 된 屋身에는 四隅柱가 刻出되고 屋蓋에는 三段級의 「屋蓋石받침」이 造出되고 四隅轉角에서 笠形反轉을 하였다. (總高一八〇cm) (麗代 韓國塔 婆目錄井邑郡條)

③ 石造佛立像

頭部·右腕·下肢를 破失한 石造立像인 바 流麗한 衣紋이 若干부 일뿐 磨損이 甚하다.

④ 拙稿 「井邑長文里五層石塔」考古美術 第五卷 第九號

谷城의 塔·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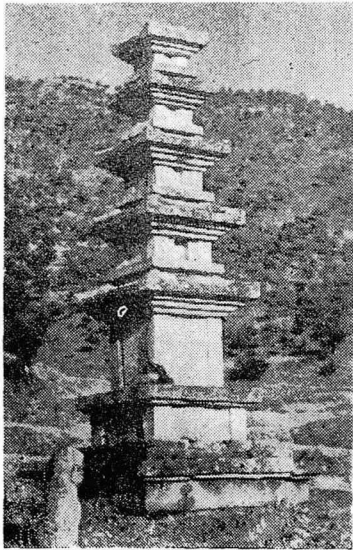
(全南谷城郡佛蹟一)

鄭 永 鎬

全南 谷城郡內에서는 新羅統一時代 九門禪山의 하나인 桐裏山 大安寺가 있고 이밖에도 觀音寺 道林寺 등 많은 寺刹과 또는 廢寺址에 遺物遺蹟이 殘存하는데 지난 겨울에 筆者가 이곳 一帶를 數日間 踏查하여 十餘點의 新資料를 調査한 바 있다. 앞으로 더 많은 文化財의 新發見 調査가 있을 것을 期待하면서 優先여기에 몇 가지만을 紹介하고자 한다.

一、柯谷里五層石塔

梧山面 柯谷部落의 東方約五百m되는 山麓의 발가운데 있으며 이 石塔에서 南向하여 山脚에 全長五〇m의 石築址가 있고 周圍 田中에 瓦片이 散亂하여 곧 南向寺刹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石塔에 關한 記錄은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있어 이것에 依하면 完全한 石塔이라 하였는데 現在에도 큰 損傷이 없는 편이다. 原位置인데 石塔 앞의 左右에 護石이 있는 것은 近年에 部落民이 隣接한 墓所에서 移安한 것이라 한



다. 塔은 現高 六·四m인데 二層의 基壇上에 五層의 塔身이 놓여 있고 一石의 露盤은 右便護石 쪽에 떨어져 있다. 下基는 四石으로 짜여져 있는 面石위에 五枚石으로 된 甲石이 놓였고 副椽이